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히11:1-6

기독교의 근본: 믿음,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믿음, 행위와 믿음, 엡2:8-9, 롬1:16-17

믿음이 무엇일까?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있다.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것

히브리서: 주후 66년경,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의 메시아, 대제사장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확증한다.

그리고 10장 23-25절의 권면의 말씀을 준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26-31절: 구원받은 뒤에 배도하면 심지어 죽는 일도 일어난다.

32-35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 고난, 핍박, 확신을 가져라.

36-37절: 인내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38-39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합2:4; 롬1:17). 배도하여 뒤로 물러가 사망에 이르지 말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보이는 희생 예물, 제사장 체계로 되돌아가려 함

믿음의 정의: 히11장(뛰어난 율리), 1-6장 뛰어나신 분, 7-10장 뛰어나신 대제사장

그리고 나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11-12장에서 믿음을 설명한다. ★★★

믿음의 정의(1절)

성경의 믿음은 긍정적 생각이나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믿는 미신도 아니다.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확신하고 행하는 것
교회가, 믿는 이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므로 세상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실체는 기초를 뜻한다.

무엇을 바라는가? 죄 짐을 벗는 것,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데서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는 것

믿음은 이러한 미래의 바람이 지금 이 시간에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 ★★★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천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화로운 몸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렇다는 증거를 받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후5:7).

오순절 은사주의, 경험주의를 반대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믿음만을 신뢰한다(롬10:17).

믿음의 선진들의 예(2절)

장로들, 믿음의 족장들, 구약시대의 선구자들: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

믿음은 신약시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

믿음의 예(3-12절)

1. 세상들의 창조(3절): 진화, 혹은 재창조 같은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

세상들, 사람을 기준으로 땅 위, 땅, 땅 아래, 짐승, 식물 등의 세계

a. 세상은 스스로 생기지 않았고 영원하지 한다. b. 창조주가 있다. c. 정확하게 그분이 뜻하는 대로 지어졌다. d. 무에서 지어졌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2. 예물을 드리는 것(4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희생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 예배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물을 드렸다.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허사다(롬10장의 이스라엘).

이것은 예배 행위이다. 공적 예배, 사적 예배, 믿음 없이 행위로 하는 것은 허사이다.

3.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5-6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성화의 삶

그 결과 하나님이 옮기셨다.

에녹과 엘리야: 휴거의 사례,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 휴거, 믿음으로 된다.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보상해 주신다는 것,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부지런히 찾는 자, 마음을 다해 찾는 자

4. 심판의 경고를 받고 준비하는 것(7절), 재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방주를 지었다.

교회 시대의 재림의 표적: 유대인, 미국과 영국의 쇠퇴, 유럽 연합, 종교 통합(카톨릭), 지진
평화 추구, 노아는 경고의 표적을 받고 믿음대로 외치고 심판을 선포하였다. ★★★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내 집 건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예수님을 믿는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를 둔 것이 복이다. 재산, 명예, 학식이 소용없다.

노아는 그의 거룩함으로 믿음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

5.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8-9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네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나아갔다.

살면서 고향으로 가려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낯선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았다(장막들에
거함).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6. 자녀들을 낳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11-12절).

사라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웃었다. 폐경이 되었다.

하갈을 대신 주었다. 그러나 믿음을 실행할 때에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랬더니 수태할 힘을 얻었다.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나왔다.

7. 믿음에서 믿음까지, 자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을 다 믿음으로 한다. 롬14:23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13-15)

1. 믿음 안에서 죽었다. 약속하신 것들을 당대에 받지 못했다.

가나안 땅의 소유, 하늘의 별들 같은 자손들, 메시아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소유하며 살았다.

a. 멀리서 바라보았다. 틴데일, 루터, 존 번연

b. 확신하며 받아들였다(끌어안았다).

c.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 땅에 애착을 두지 않았다(골3:1).

d. 하나님이 만드신 영구한 도시를 찾겠다고 선언하였다.

e. 그리고 믿음대로 땅의 고향을 찾지 않았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나할 수도 있다. 외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f. 이러면서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16)

a.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불법과 죄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b.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c. 그리고는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하늘에 영구한 도시를 만드셨다.

고전2:9

롬8:32

결론

무엇을 바라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요일5: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